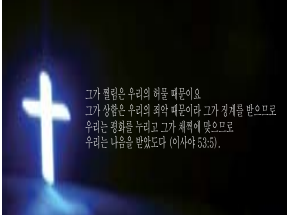




한울타리



그가 멸망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와 고통을 위하여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이사야 53:5).

• 재의 수요일 예배

올해 재의 수요일은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영길 목사님께서서는 본문 열왕기하 4:42-44의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 알”이란 제목으로 ‘죄란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풍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한 알의 씨앗이 되어 희생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19)”,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죽어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김문소 장로님의 “사순절 계율 준수”의 초청이 있었고, 재의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 사순절 계율준수 초청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모든 성도 여러분,
 해마다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사순절은 이 기념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부활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들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선포된 자비와 용서에 갈급한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재를 표식삼아 부활절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전해 온 이 표식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성과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 사순절 새벽 기도회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와 용서, 구제, 이웃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3월호 차례

- ▶ 재의 수요일 예배
- ▶ 7대손을 위하여...?
- ▶ 당회 소식
- ▶ 해외 선교위원회 소식
- ▶ 사회정의 위원회
- ▶ 국내선교 위원회 소식
- ▶ “말씀과 함께” 소그룹
- ▶ 성경공부
- ▶ 2011년도 교회 기구
- ▶ 2011년도 새 교구장/ 구역장
- ▶ 은퇴장로 담사문
- ▶ 집사외
- ▶ 권사외
- ▶ 남선교회
- ▶ 부부 청년회
- ▶ 유아세례 신앙관중문
- ▶ 에스터 여성교회
- ▶ 마리아 여성교회
- ▶ 하나님 앞에 명품
- ▶ Ransom Youth Group
- ▶ Sunflower Sunday School
- ▶ 교인동행/ 광고
- ▶ 새교우 환영반 소식
- ▶ KCB 플러리

7대손을 위하여...?

이영길 담임목사

위스콘신주에 사는 Onieda원주민들의 독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족장회의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본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결정이 우리의 7대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오늘의 삶이 언젠가 펼쳐질 나의 천국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성서적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

표적으로 달란트의 비유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의 삶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상상을 초월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7대손에게 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7대후손을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저려 오지 않습니까?

어느덧 사순절이 도래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천국의 삶을 결정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우리들의 7대손의 삶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당회 소식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

1. 올해 사순절 기간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3월 10일 (목)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은 제외) 매일 새벽6시 (토요일은 오전 8시)에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2. 해외선교 위원회에서 콜롬비아 교육 선교를 위한 현지 답사를 위해 김민준 집사의 콜럼비아 선교지 방문을 허락하고, 7월말에서 8월초 (2주간) 약 10명 정도의 선교팀이 떠날 예정입니다.
3. 교인위원회 보고:
 - 1) 전출 교인: 민병서/박영미, 변은지
 - 2) 출생:
 - 김승호/이혜승 집사댁에서 1월 24일에 득남 (승주, Jimmy)
 - 허보석/조명희 교우댁에서 1월 12일에 득남 (Nathan, 윤우)
 - 3) 소천: 1/16/2011-고 강길원 장로
4. 아래 교구의 교구장을 새롭게 임명하였습니다.
 - 1) 중앙교구: 조준호 장로
 - 2) 중서교구: 안태준 장로
 - 3) 남서교우: 최연일 장로

Lenten
Early Morning
Prayer

사순절 새벽 기도회

“EVERYONE IS WELCOME”

March 10 - April 23
Monday through Friday (6am)
Saturday (8am)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 Tel: 617.279.2643 / www.kcboston.org

해외 선교위원회 소식

안태준 장로

건축 이후 어려워진 교회의 경제사정은 어김없이 해외선교 위원회에도 여파로 밀려왔습니다. 해마다 니카라과 단기선교는 거의 단기선교 단원들의 회비와 노회, 대회, 각종 기금모금으로 거의 교회 재정을 쓰지 않고도 충당해 왔었으나, 해외 선교사님들의 지원과 각 선교 기관의 보조는 교회의 예산으로 집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어느부서 할 것없이 엄청난 예산삭감의 결과로 인해 건축재정은 물론이며, 어떠한 행사들은 예산이 없이도 진행 해야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물질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푸념도 나오겠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의 입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매달리는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리하여 부족한 가운데 항상 더해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해외 선교위원회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봉사, 교육선교 이렇게 3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어떻게 단기선교 계획이 늘어났으며, 무슨 재정으로 단기 선교팀 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나, 벌써 3월 치과의료 선교는 교회의 보조 없이도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미국내 회사들의 협조와 몇몇의 교인분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올 한해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작은 자 보다 더 더 작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어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능력 주시는 여호와와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저희 해외선교 위원회는 해마다 다녀오고있는 니카라과 (중남미) 외에도 남미 나라인 콜롬비아를 또다른 선교지로 물색하여, 지난 1월에 선교지 답사를 마쳤으며(김민준 집사)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이 두곳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PS: 3월 치과 의료팀이 콜롬비아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 단원 : 김민준, 김수우, 김민경, Mindy Gil
- 사역지 : 콜롬비아 - 가르떼헤나, 보까치카
- 선교사: 존 황 선교사님

이번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치과팀 사역이 콜롬비아의 가르떼헤나 와 보까치카에서 있을 예정이며, 8월에는 10여명의 교육팀을 파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곳 콜롬비아에서는 예수전도단 소속의 존 황 선교사님이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맞을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각자의 훈련 외에도 그곳 전도에 합당한 특별 선교훈련을 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니카라과 단기선교팀원들은 11월에 파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마다 7, 8월에 다녀왔으나 그곳 선교사님께서 비성수기로 선교날자를 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또한 우리 자체내에서도 올해에는 11월이 선교 떠나기에 더 합당하겠다고 결론지어진 바 3월 치과 선교, 8월 교육선교 그리고 11월



사회정의 위원회

김정선 장로

현재 우리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PCUSA에서는 환경을 위한 사역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많은 운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사회정의위원회에

Join하셔서 함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정선 장로 (jkim@systemic.com)께 연락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가장 큰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푸른 보스턴 한인교회와 사회정의를 위해 집과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 분리수거 Recycle 적극 참여
- 쓰레기 줄이기
- 스타이로폼 컵, 접시 사용 줄이기
- 종이 사용 줄이기 및 Recycle
- 전기 아껴 쓰기
- 절전용 CFL 전구 사용
- 물, 개스 아껴쓰기
- 플라스틱 백 덜 쓰기
- 채소 가꾸 먹기
- 비료 안쓰기(유기농)
- 살충제, 집안의 케미칼 덜 쓰기
-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근원이 되는 이산화탄소 (Carbon Footprint) 줄이기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기, 냉난방 절감, 찬물 빨래 및 널어서 말리기, 등등)
-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 운동에 협조
- 우리 2 세, 3 세들에게 절약을 권장

OUR MISSION

저희 교회 사회 정의 위원회에서는 PCUSA 가 노력하는 사회정의의 문제와 함께 이민교회로서,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의 영역들을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PCUSA 의 입장파 이민교회로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계에 만연된 사회악과 부조리, 권력 남용, 셀 수 없는 각종 불의로 인해 작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교회 소식지에 홍보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까지 참여하며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하도록 우리가 함께 가자는 비전입니다.

Social Justice Committee

사회정의위원회는 무엇하는데요?



becoming deeply committed Christians

Knowing, Loving, and Serving God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resbyterian Church (U.S.A.)

담당목사 이영길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el:(617)739-2663 Fax:(617)739-1365 Internet:http://www.kcboston.org

국내선교 위원회 소식

이선영 장로

우리 교회가 교육관 & 커뮤니티 증축과 더불어 더 많은 교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와 함께 은사를 통한 이웃 섬김의 두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두 날개를 사용하며 발랜스를 유지하며 높은 비상을 할 수 있듯이 말씀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와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하는 것이 국내 선교의 목적입니다.

매월 한번씩 계획하고 있는 Oasis: Music Night 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음악을 통하여 이웃과 하나되며, Movie Night에는 이웃과 함께 영화 감상을 함으로써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한국음식이나 프렌치 Cooking class도 가질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사물놀이팀의 공연이나, 한국 음악인이나 아티스트들 초청하여 나눔의 시간을 갖고, Musical Recital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Outreach program을 통하여 Brookline, Boston,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 혹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은사를 통한 이웃 섬김은 여러가지 봉사 활동,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이웃과 만나며,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4월 16일(토요일) 오후 7:30분
 - Movie Night (Children's Chapel)
 - The Movie, [Hiding]: 북한 탈북자들의 실상을 그린 영화 -
- 4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분
 - Movie Night (Children's Chapel)
 - Oasis: Music Night (Community Hall)
 - Soft Music & Coffee, Tea -

“말씀과 함께” 소그룹 성경공부

방경남 집사

소그룹 성경 공부는 현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 속에 몇 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일 1부와 2부 예배시간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총 5개반
- 10시30분~11시30분:베드로반(인도자:권복태)
- 10시50분~11시50분:안드레반(인도자:박신영), 요한반(인도자:심운보), 빌립반(인도자:이선영), 영어반(인도자:김성현) 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경 공부는 지식적으로 성경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그룹 성경 공부는 이러한 기존의 성경공부와는 달리 적은 인원이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서 토론식 형태로 성경 말씀이 글자로서의 평면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각자의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문안하고 배려하는 행위를 익혀 가면서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커가기 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므로 그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함

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저 성경책 속의 말씀으로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경구절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가지 다른 느낌과 경험을 갖고 있고 이것이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서로 공유될 때 우리들은 좀더 성숙해지면서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소그룹 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1년도 교회 기구

당회	위원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
	1부 교육위원회	1부 위원장	박영철 장로
	2부 교육위원회	2부 위원장	박영철 장로
	3부 교육위원회	3부 위원장	이정규 장로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예배예술팀위원회	위원장	홍경자 장로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성현 장로
	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장로
	기획관리/건물운영	위원장	김성현/이정규 장로
	교인위원회	위원장	이정규 장로
	사회정의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장로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안태준 장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김문소 장로
		위원	김정선 장로
			안태준 장로
감사		이정규 장로	
노회총대		김문소/한승희 장로	
공천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장로	
	부위원장	이선영 장로	

2011년도 새 교구장/ 구역장

- **북동교구:** 보스톤 북동쪽으로 Rt.93의 동쪽지역
북동 1구역 구역장: 최정열 집사 | 781-383-6370

- **북서교구:** 보스톤 북동쪽으로 Rt.93의 서쪽에서 Rt.2 사이지역
교구장: 박영철 장로 | 781-674-2498
북서 1구역 구역장: 김현구 집사 | 617-694-0985
북서 2구역 구역장: 류택현 집사 | 408-702-7141

- **중서교구:** 보스톤 서쪽으로 Rt.2와 Rt.90 사이 지역
교구장: 안태준 장로 | 617-928-0407
중서 1구역 구역장: 박종열 집사 | 781-828-4172
중서 2구역 구역장: 김시찬 집사 | 617-851-0766
중서 3구역 구역장: 강승민 집사 | 617-448-8189
중서 4구역 구역장: 지 훈 집사 | 617-243-9924

- **남서교구:** 보스톤과 브루클라인의 남서쪽으로 Rt.90와 Rt.95사이 지역, Newton 포함
교구장: 최연일 장로 | 781-326-2916
남서 1구역 구역장: 김동숙 집사 | 617-630-9284
남서 2구역 구역장: 최창열 집사 | 508-393-4548

- **남동교구:** 보스톤 남동쪽으로 Neponset River와 Rt.95의 동쪽 지역, Milton 포함
교구장: 김정선 장로 | 774-719-2383
남동 1구역 구역장: 안명훈 집사 | 781-562-1064

- **중앙교구:** 보스톤, 브루클라인, 케임브리지 지역
교구장: 조준호 장로 | 781-741-2722
중앙 1구역 구역장: 이숙재 권사 | 617-527-2176
중앙 2구역 구역장: 이경자 집사 | 617-945-8822
중앙 3구역 구역장: 김대식 집사 | 857-998-2557
중앙 4구역 구역장: 노윤경 집사 | 617-505-6113



- 북동교구
- 북서교구
- 중서교구
- 남서교구
- 남동교구
- 중앙교구

2011년도 섬기시는 분들

집사회	회장: 최정열 집사 고문: 조준호 장로 총무: 강승민 집사 서기: 김우진 집사 회계: 정재원 집사 건물관리: 엄재관 집사 경비안전부: 구용환 집사 경조부: 차주혁 집사 구제부: 김동숙 집사 도서부: 배한원 집사 문화부: 최현구, 유승호 집사 봉사부: 박신영 집사 생활상담부: 최창열 집사 체육부: 박진욱 집사 의료부: 이주용 집사 전산부: 하대준 집사 친교부: 김현주 집사 홍보부: 박성준 집사
남 선교회	회장: 방경남 집사 부회장: 이창호 집사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고경아 집사 고문: 이상혜 사모, 김영미, 김춘미 집사 부회장: 윤미자 집사 총무: 김영순 집사 회계: 홍도화 집사 서기: 김향인 집사 구제부: 김효경 집사 친교부: 임숙현 집사 봉사부: 정명숙 집사
에스더 선교회	회장: 이성숙 집사 고문: 이상혜 사모, 배한원, 노윤경, 박애리 집사 부회장: 강혜정 집사 서기: 김윤정 집사 회계: 손주연 집사 문화부장: 김희정, 이경희 집사 선교부장: 윤희경, 김정선 집사 친선부장: 전아사, 이현주,곽서영 집사 봉사부장: 변옥화, 문유경, 이미정 집사
권사회	회장: 정선주 권사 부회장: 정능화 권사 회계/총무: 이계순 권사
상록기도회	회장: 주정대 집사 부회장: 장현숙 권사 총무: 이숙재 권사
평년 I부	회장: 지민형 부회장: 김보라
평년 II부	회장: 권만석 부회장: 이준우 총무: 이혜민 회계: 이유리
부부평년부	회장: 정광근/이동화 부회장: 채진병/최수경 총무: 이재익/김명은

은퇴장으로 답사문

김영범 장로

오늘은 재임직하는 장로님과 집사님, 우리교회에 나오셔서 처음으로 직분을 받는 서리집사들과 금년도의 모든 구역장님들의 성스럽고 활기차고 희망찬 임직 날인데, 직분을 그만두는 은퇴식도 꼬리를 잇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퇴식을 갖게 해 주신 우리 당회와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retirement가 우리 영어사전에 “은퇴” 하고 번역되었지만, 보스톤한인교회 시무장로직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저는 은퇴라는 말 보다는 퇴임을 오히려 선택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그 당시의 제 나이가 또래의 장로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장로가 되려면 단순히 다음의 두가지 부류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두 말 할 여지도 없습니다. - 하나는 자기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보다는 교회생활이 최우선 이어야 하고, 완전히 예수님께 몰입되어 있는 생활을 해야한다. 둘은 실제의 생활이 물질적으로도 남보다 풍부하여 정상적인 현금 외에도 교회의 살림을 돕기도 하며, 각 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듣거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기꺼이 도와주어야 한다. -



미국에 와서 처음 제직수련회에 참가하였을때 한 program을 맡았던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들에게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참가한 거의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장로는 교회 재정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미국장로교 헌법이나 우리교회의 규칙에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장로는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신학적인 지식은 거의 없지만 언제나 구역에서 요청하면 구역성경공부 인도자 노릇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퇴임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의 물리적 나이가 70세를 훌쩍 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웃돈다고 해도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로는 70세를 전후하여 신체적 기능이 정신력을 따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체력과 정신력이 저하되면 물러나야만 새로운 능력있는 분들이 그 뒤를 이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 헌법이나 우리 교회 규칙에 나와있는 장로의 임무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보시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세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장로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이 교회봉사에 도움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식의 상의 적성으로 어느 분야를 맡더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령 모르는 분야는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며 또 선임자에게서 배우기도 하며, 선임자는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단 장로에 임직되면 특수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최장의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자기의 책임과 임무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장로교는 현대 민주주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의 결정과 승인은 당회장 목사님의 주도 아래에서 당회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로서 많게는 한 600여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당회의 모든 결정과 승인은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와야 하지만, 그 말은 곧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회의 모든 처리와 운영이 평범한 우리 대다수의 인간들이 보기에 수긍이 가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는 무척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무하고 있는 장로님들이나 앞으로 시무하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교우님들 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4페이지에 계속